

동해로는 일본해 못 이긴다.

서양지도는 'Korean Sea', 일본지도는 '조선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은 Korean Sea나 Japan Sea나 하는 바다 이름 문제로 서로 맞서 있다. 이것은 영토 영해문제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Japan Sea(일본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East Sea(동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갈수록 싸움의 격차가 커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바다와 영토를 일본에 넘겨줄 수는 없으므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해를 이길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그냥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영토와 바다를 지켜 낼 수가 없다. 우리의 동해 주장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살펴 본다.

1. 바다이름, 왜 중요한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세계가 인정한 일본해>라는 동영상 홍보물이 떠있다. 우리로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일본해라는 이름이 동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세계의 지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일본해를 세계의 지도에서 몰아낼 수 있다. 우리가 동해, 일본해 이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기분 나쁘다는 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일본해라는 이름이 굳어지면 일본해 속에 있는 독도도 세계인이 일본 영토로 따라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바다 이름과 섬의 영유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동해가 일본해로 굳어진다고 해도 바다 이름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중요하고 또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국가와 국가를 통제하는 높은 단위의 초국가는 없다. 결국 **세계인의 보편적 인식이 국가와 국가사이의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일러 국제법에서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라고 한다. 결국 세계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결정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세계인이 동해바다의 조그만 섬의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엄청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심판을 해주지는 않는다. 일본해 속에 있으니 일본섬이 맞다고 쉽게 생각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인이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바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다. 덧붙여 **지금 세계에서 쓰이는 보편적인 이름은 독도보다 다케시마이다. 일본해와 다케시마가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더욱 일본 영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2. 왜 East Sea(동해)로는 Japan Sea(일본해)를 못 이기나

1. 동서남북은 모든 세계인이 공통으로 쓰는 **방위개념**이다.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다. 동서남북은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쓰는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이다. 옛날 사람들은, 아니 지금도 바다가 있는 국가라면 어디서나 동해, 서해, 남해라는 이름을 써 왔고 쓰고 있다. 옛적부터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것은 했지만 우리만 동해라고 쓰는게 아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인도, 쿠바 어느 나라 사람들이건 동해가 있고 실제로 쓰고 있다. 때문에 우리만 동해라는 이름을 독점할 수는 없고 그런 권리도 없다.

나. 어느 집이나 장남 장녀가 있었고 차남 차녀가 있었다. 첫째야 둘째야 이렇게 자기 집에서는 물려도 통하고 문제도 없다. 물편도 없다. 자기 집 가족신문에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광화문 네거리에서 "장남" 이렇게 부른다면 논란이 생긴다. 모든 장남이 대답하고 나서면 누가 당사자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물론 억지로 고유한 이름을 장남 차남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런 이름은 억지에 속하는 것이다.

동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동해>라고 부르면(영어로 East Sea)동쪽 바다가 있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모두 자기네 동쪽 바다를 가리키는 줄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우리가 쓰는 동해라는 이름은 다른 나라도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결국 세계와 다른 국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써오던 세계에 대해 달혀있던 인식의 표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은 일국 시대가 아니고 교섭된 상태로 살수도 없는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세계인의 인식을 전제한 **고유명사가 물어야 한다.** 공통언어인 영어로 번역해도 존중되는 고유명사 이름을 물어야 통하는 시대이다.

다. 방위로 지으면 국가사이에 모순이 생긴다. 우리가 동해면 일본은 서해가 된다. 우리는 서해인데 중국이 보면 동해가 된다. 인도는 동해지만 미얀마로서는 서해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교육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은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된다. 서로 자기 중심의 방위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영원히 논란을 겪어야 하는데 어느 국가가 양보하랴.

라. 이런 논란스런 사태를 만들 수 있는 이름을 어느 국제회의에서 함부로 인정해 주겠는가. 방위 이름은 어느 특정국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우긴다고 우리 편을 들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 어 지역이나 논란을 겪을 필요가 없는 고유명사를 내세워야 한다. 이름은 고유명사로 지어야 한다.

ㅂ. East Sea에 관한 국제사회의 문헌적 근거는 빈약하다.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공인된 보편적으로 쓰인 이름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내세우는 문헌적 근거 대부분은 조선해 자료이지 동해 자료가 아니다.

3. 그러면 지금 세계에 동해보다 일본해라는(2 쪽에 계속)

(부록1에서 계속) 이름으로 알려진 이 바다는 예부터 고유한 이름도 없이 그냥 동해로만 불렸는가, 아니다.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생활상의 편의 때문에 국내 용어로 동해라고 우리끼리 불러왔지만 당시의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던 **조선해라는 고유한 이름이 엄연히 있었다.** 더구나 이 조선해라는 고유한 이름은



신전중개전도 - 일본번개략도 1809년 조선해 표기 일본 고지도

문헌 분포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더 널리 쓴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두번 쓴게 아니고 동해 바다의 정식 이름으로 인정하고 널리 쓴 이름이었다는 문헌적 근거가 많이 남아 있다. 또 서양에 남아 있는 옛 지도를 보면 거의 Corean Sea 또는 Sea of Corea로 되어 있다. East Sea로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우리에게서 직접 전해졌던 것이 아니면 간접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전해진 이름이건 모두 조선해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당시 동양에서 쓰인 동해바다의 속명이 아닌 정식 이름은 조선해였다. 조선은 우리나라의 옛 이름이다.

4. 이름이 국제기구에서 제 정해진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려면 아무렇게나 지어서 밀어 부치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본해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일본해라는 이름보다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더 합리적인 이름을 내 세워야 한다.** 이미 일본해가 공인을 받았거나 받을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그게 싫다고 생뚱맞은 이름을 지어서 부친다 해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 반드시 새로 주장하는 이름이 붙여져야 할,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역사성과 보편성이다. 우리가 새 이름을 내 세우려면 일본해보다 먼저 쓰여지던 원래 이름이어야 하고 분명한 문헌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이름이 일본인 자신들까지도 보편적으로 썼다는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해라는 이름을 제압할 수 있다.

조선해는 옛적부터 일본인 자신들이 널리 사용했던

이름이고 일본에서 사용했던 문헌적 근거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동해로 쓰인 경우를 일본에서 찾기는 어렵다. 일본에 있는 문헌적 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일본인 자신들이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내 세울 때 자기들이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일본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다. 또한 지도에 영어로 표기된 Corean Sea의 대부분이 결국 조선해를 번역한 이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편성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조선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일본해라는 이름을 다시 지어서 대치시켰는가.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그 바다를 조선의 관할로 인정하다가 제국주의적 경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던 시기에 침략적 팽창주의 발상에서 바다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근거도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다. 일본이 꿈쩍 못할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5. 지금 일본과 합의해서 청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사람도 있다. 한국해로 하자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으로 일본해를 꺾기는 힘들다. 우선 일본이 절대로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 지은 이름은 일본해만큼의 역사성과 보편성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가 청해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해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일본해를 반대하기 위한 주장으로 인식되어 지지를 얻지도 못하고 비웃음만 살 우려가 있다. 지금 쓰이는 일본해라는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대지 못한채 새 이름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앞으로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주장해서는 일본해만 더 굳혀주게 될 것이다.

한국해 역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주장은 아니다. 영어로 쓰인 Corean Sea는 일본에서 쓰이던 조선해를 번역한 것이지 한국해를 번역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조선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해라는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쓰이지 않았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줄임말인 한국을 근거로 한국해라고 주장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1948년 8월 이후에나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1929년부터 국제수리기구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일본해를 대치하는 주장으로 인정받기는 불가능하다. 국수주의 경향의 주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해 역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주장은 아니다. 영어로 쓰인 Corean Sea는 일본에서 쓰이던 조선해를 번역한 것이지 한국해를 번역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다음3호계속)

(부록2에서 계속) 조선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 해라는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쓰이지 않았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줄임말인 한국을 근거로 한국해라고 주장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1948년 8월 이후에나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1929년부터 국제수로기구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일본해를 대치하는 주장으로 인정받기는 불가능하다. 국수주의 경향의 주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본해의 본래 이름 조선해를 찾아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남들의 동의를 받기도 쉽다.

6. 지금 시대는 영어가 국제문자로 쓰이는 시절이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모두 비슷한 알파벳 표기이다. 그러므로 영어로 어떤 표현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조선해의 영어 번역어가 Corean Sea라는 사실은 이미 유럽의 수많은 옛 지도들이 입증하고 있다.** 동해를 영어로 번역해서는 Korean Sea가 되지 않고 East Sea가 된다. 어느 나라의 동쪽바다인지 우리나라 사람 빼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름이다. 설령 위치를 안다고 해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떠오르지 않는다. 바다 이름과 우리 영토가 서로 아무 관계없이 따로 노는 것이다. 이걸 비극이다. 왜 우리가 애써 새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지 이유를 모르게 된다. **반드시 영어로 Korean Sea가 나오게 이름을 지어야 제값을 한다. 우리가 지금 동해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싸우는 이유도 바로 Japan Sea를 Korean Sea로 바꾸기 위해서 아닌가.**

7. 지금 우리의 바램대로 한국해를 부치고 싶다면 우선 조선해 원 이름을 찾고 나서 영어로 Korean Sea로 국제적인 이름을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국내에서 한국해로 서서히 바꾸어 쓰면 가능할 것이다. 한국해로 바꾸어도 영어 표기는 변하지 않는다. 세계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며 국제기구를 혼란스럽게 할 일도 없다. 처음부터 한국해로 바꾸려고 일본과 힘겨루기를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 그대로 조선해로 부르는 것도 괜찮다. 조선도 우리 이름이므로.

8. 조선해는 오래 전부터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널리 쓰이던 공인된 동해바다의 고유한 이름이다. 서양의 많은 지도에서도 보듯이 이미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졌던 이름이다. 서양의 지도에 표기되기 훨씬 전부터 조선해가 이미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고지도에 Corean Sea라는 번역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수 백 년 전 당시의 우리 생활습관과 인식의 한계 때문에

편한 대로 동해라고 불렀고 또 그런 증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동해라는 이름을 국제사회에서 주장할 시기는 아니다. 그건 그 당시의 사정이지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미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일본해를 누르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 이름인데도 무슨 이유에서건 이를 버려두고 아무런 승산이 없는 **East Sea를 우기고 있다는 건 결국 일본해를 편들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2008. 8. 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에서 펴 이 글에 너무나 동감하기에 많은 분들께 알리고 같이 동조 하여 우리 정부의 잘못을 수정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아래 글은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명자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신 글입니다 이명자 선생님 메일주소는 아래 것입니다. Myungza Lee <myungzalee@hotmail.com>

저는 조금 전에 전화를 드렸던 미국 Maryland 주에 사는 교포 이명자입니다. 이곳 교포단체에서 'Sea of Japan' 표기 옆에 **Donghae(East Sea)**를 Add하느라고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Donghae-Japan Sea' 라고 하면 역시 일본바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Japan Sea'를 아주 없애고 'Donghae' 라고만 한다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수 없다면, Korea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 제가 동해와 일본바다라는 글을 써서 한국의 신문사를 몇 군데에 보냈는데 조선일보사에서만 제글을 고쳐서 독자투고란 게재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본국의 관련부처에서 그 글을 보고 조치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동해-일본바다(East Sea - Japan Sea)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름을 짓거나 Korea-Japan Sea 라고 하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업을 주최하는 CANGO USA 최정범 의장(steve@dokdokorea.org)에게 저의 뜻을 전하니까, 외무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결정한 것이기에 자신은 그 뜻을 따를 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포에게 이야기하니 그분도 **Donghae(East Sea)**는 적합한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위에 많은 분들도 제 생각과 같다고 합니다. 이일이 더 진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합한 이름을 정하고Japan이라는 단어를 빼어야합니다. 아니면 Korea를 Japan앞에 꼭 넣어야 합니다. 지금 동해나 East Sea로 표기하려거든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최정범 씨와 몇몇 인사들이 곧(다음수요일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국회의원들을 만나서 East Sea를 지도에 넣게 해달라고 부탁 할 것입니다. 미국국회의원들을 만나기전에 최정범 씨를 독도사수연합회에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첨부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내일 사무실에 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Sea of Korea 로 주장 합시다,